
최근 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

2021. 10. 26.

관 계 부 처 합 동

순 서

I . 글로벌 인플레이션 동향 및 전망	1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II . 국내물가 동향 및 전망	3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III . 향후 대응방안	4
---------------------	---

① 에너지	4
-------------	---

② 공공요금	5
--------------	---

③ 농축수산물	5
---------------	---

④ 가공식품	6
--------------	---

⑤ 원자재	6
-------------	---

⑥ 시장질서	6
--------------	---

⑦ 기타	6
------------	---

IV . 추진계획	7
-----------------	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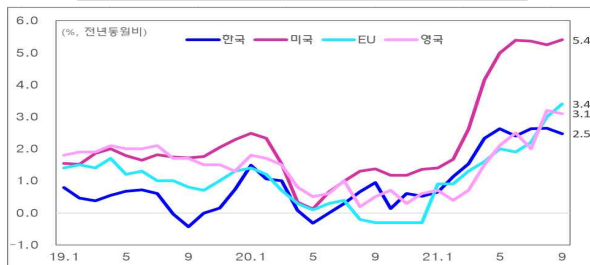
[참고] 유류세 및 할당관세 한시인하 관련 참고자료	8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I. 글로벌 인플레이션 동향 및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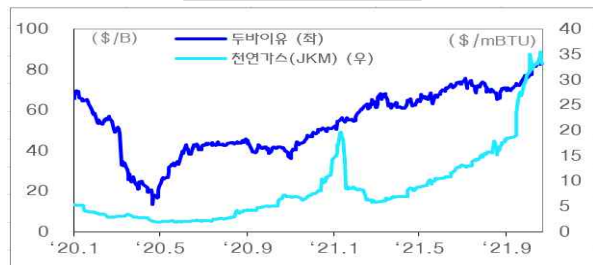
① [글로벌 인플레이션 동향] 주요국 물가상승률이 '08~12년 이후 최고수준

- 미국은 유가 상승세, 공급차질 등 영향으로 '08.7월 이후 최고 소비자물가 상승폭(9월, 5.4%) 기록
- 유로존은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독일 물가가 29년만에 처음으로 4% 상회(9월, 4.1%)하며 '08.9월 이후 최고치(9월, 3.4%) 기록
- 영국도 8월 3.2% 상승하며 '12.3월 이후 최고 수준 기록 후 9월은 3.1% 상승하며 오름폭 소폭 둔화

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



에너지가격 추이



② [글로벌 인플레이션 원인] ①에너지가격 상승, ②공급망 차질, ③수요회복 등

① (에너지가격 상승) 국제유가(두바이)는 3년만에 최고치(83.9\$/B, 10.18일), 천연가스는 역대 최고수준(동북아선물(JKM) 35.6\$/mBTU, 10.20일)

- 경기회복·기상이변 등에 따른 수요증가*와 생산국 공급 문제**로 인한 수급불균형으로 높은 상승세 지속

* 유럽 풍력발전 부진, 브라질 수력발전 부진, 中 석탄발전 축소 등으로 대체수요 증가

** 美 허리케인 피해, OPEC+ 감산체제 지속, 러시아의 유럽향 가스공급 제약 등

② (공급망 차질) 작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교역량이 빠르게 반등 하였으나 주요국 항만적체* 등으로 물류지체 및 운임상승** 발생

* 코로나로 인한 중국·동남아 항만 일시폐쇄, 미국 항만 처리능력 한계, 미국내 물류산업 구인난 등이 주 요인

** 예: 상하이발 컨테이너 운임지수(SCFI)는 코로나 이전('19년 평균) 대비 약 5배 수준 상승

③ (수요회복) 백신접종 증가에 따라 선진국 중심으로 경제활동 재개가 본격화되며 억눌렸던 수요(pent-up demand)가 분출

* (미국) 초과저축, 임금증가 등이 pent-up 소비 뒷받침 + 11월부터 美 여행제한 해제 (유로존) 쇼핑외식 등 소비활동 코로나 이전 수준 거의 회복 이동량은 코로나 이후 최고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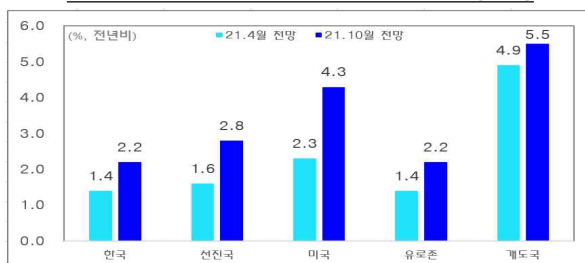
③ [평가] 일시적이라는 평가도 있으나, 당초 전망보다 장기화 가능성

- 최근 물가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작년 코로나19 기저효과, 원자재 가격 상승, 공급차질 등은 일시적인 요인이라는 평가
 - *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(ECB) 총재는 9.28일 ECB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현 인플레이 압력은 일시적이며, 수급 차질 및 병목현상은 완화될 것이라고 언급
 - IMF는 내년에는 코로나이전 물가수준으로 돌아갈 것이고 자기 실현적 물가급등 가능성은 낮다*고 평가(10월 세계경제전망(WEO))
 - * 근거: ①노동시장 유휴 규모 大, ②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유지, ③구조적 요인(자동화 등으로 노동시장 유휴규모 축소에 대한 가격민감도 하락)
- 다만, 에너지가격 상승 및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도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지속 제기
 - 계절적 수요(동절기 난방), 저탄소경제 전환 등으로 에너지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, 공급차질 원인해소가 쉽지 않을 것*이기 때문
 - * 노동공급의 더딘 회복, 국제 로지스틱스 문제 해소, 기업들 재고확충 등이 단기간내 해결 곤란한 측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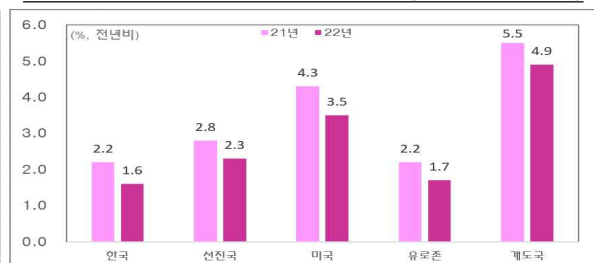
④ [전망] 물가전망도 상향 추세이나, 내년은 올해보다 낮아질 전망

- 주요기관들의 국제유가 전망은 '21.4분기 정점*' 기록 후 공급 확대 등 영향으로 점차 하락 예상
 - * 국제유가(WTI, \$/B) 전망:<EIA> ('21.4Q) 78 ('22.1Q) 75 (2Q) 69 (3Q) 66 (4Q) 63
<CERA> ('21.4Q) 81 ('22.1Q) 75 (2Q) 71 (3Q) 76 (4Q) 73
 - * 다만,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일부 기관은 올 겨울 한파가 평년보다 심각할 경우 계절수요 증가로 국제유가가 최대 100\$/B까지 상승할 가능성 언급
- 이에 주요 국제기구들은 에너지가격 상승폭 확대 등을 고려하여 '21·22년 물가전망을 상반기 대비 상향 조정
 - 다만, 내년에는 에너지가격 등 공급측 요인이 점차 완화되어 대체로 올해보다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

'21년 주요국 물가전망 수정(IMF)



'21~22년 주요국 물가전망(IMF, '21.10월)



II. 국내 물가동향 및 전망

1 [동향] 4월 이후 2%대 지속

- 정부의 수급안정 노력 등으로 농축산물 오름폭이 축소*되고 있으나, 석유류 강세 지속 및 개인서비스 상승폭 확대되며 2% 중반대 지속

* 10.20일 기준 '16대 성수품+쌀' 중 8.30일 대비 14개 품목 가격 하락, 전년 대비 12개 품목 가격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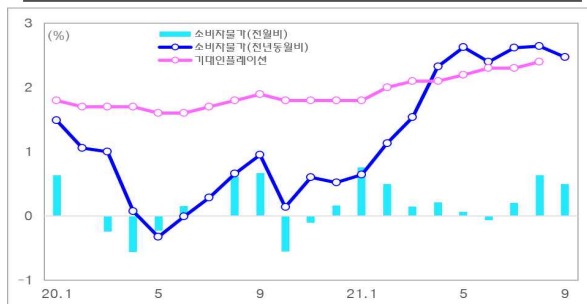
- 다만, 채소·과일·수산물 등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21개월 만에 하락 전환*

* 신선식품지수 상승률(% , 전년동월비): ('21.5)13.0 (6)10.3 (7)7.3 (8)4.1 (9)△2.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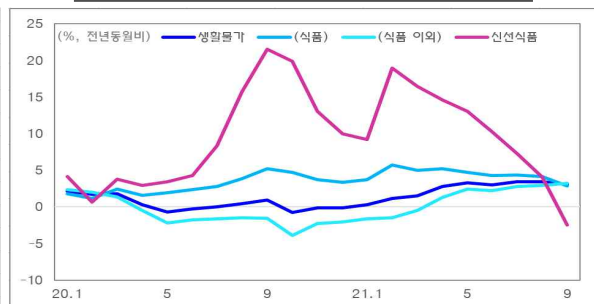
- 기대인플레이션은 올해 들어 완만하게 상승 중

* 기대인플레이션(%): ('21.1)1.8 (2)2.0 (3)2.1 (4)2.1 (5)2.2 (6)2.3 (7)2.3 (8)2.4 (9)2.4

소비자물가상승률 및 기대인플레이션 추이



생활물가 및 신선식품 상승률 추이



2 [전망] 기저효과·유가 오름세 등으로 최근 물가흐름 지속될 전망

- 10월은 수확기 도래 등 농축수산물 하방요인이 존재하나, 작년 통신비 지원*이 기저효과**로 작용하며 9월 대비 상승폭 확대 전망

* 16~34세/65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 (물가기여도 △0.7%p)

** '20.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동월대비 0.1%

- 유가 상승세가 확대되며 금년 물가상승률도 당초 전망(1.8%)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전망

👉 글로벌 물가상승압력이 지속될 경우 국내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할 필요

Ⅲ. 향후 대응방안

- ◇ 에너지가격 상승 등 외부요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·관세 인하로 대응
- ◇ 농축수산물 수급관리, 공공요금 동결, 할인행사 등 가용수단 총동원하여 생활물가 안정 노력

① [에너지] 유류세 인하 및 LNG 할당관세 인하

- ❶ (석유류) 휘발유·경유·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20% 한시인하 ('21.11.12~'22.4.30, 약 6개월)

⇒ 석유류 가격 인하폭(VAT 10% 포함, 유류세 인하폭 최대 반영 가정):
휘발유 △164원/ℓ, 경유 △116원/ℓ, LPG부탄 △40원/ℓ

- 6개월간 약 2.5조원 규모 유류세 부담 경감효과 기대
(1일 40km 운행(연비 10km/ℓ) 시 휘발유 기준 월 20,000원 가량 절감 추정)

- ❷ (LNG) 관세율 2% → 0%* 한시적용('21.11.12~'22.4.30, 약 6개월)

* 관세율 기본 3% → 할당 2%(10~12월, 기조치) → 할당 0%(금번 조치사항)

* 18원/kg 인하효과로 6개월간 약 △0.24조원 관세부담 경감효과 기대

⇒ LNG 할당관세 0% 적용 통해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민수용 LNG 가격 동결 및 발전용·상업용 LNG 가격 인하 추진

- 민수용(전체 가스수요 중 28%) 가스요금 동결여력 확보 → 물가 안정 기여
- 발전용(50%)·상업용*(22%) 등 LNG 가격 인하 가능 → 전기요금 안정적 관리 여력 확보 및 기업부담 완화

* 업무난방용, 냉난방공조용, 산업용, 수송용 등

- ❸ (추진 계획) 가격·수급 안정을 위해 최대한 신속 시행하고, 인하효과가 즉시 나타날 수 있도록 합동 모니터링 체계 운영

- (추진 일정) 유류수급 안정화*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시행 → 11.9일 국무회의 상정 후 11.12일(잠정) 시행 추진

* 유류세 인하 메시지 발표 이후 일반국민의 구매 지연, 주유소·충전소도 시행시점까지 재고를 줄일 가능성

- (후속조치) 시행 직후 즉각적인 인하효과*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중주유소에 즉시 공급되도록하고, 민관합동 모니터링체계 가동

* 「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방안」 내주중 마련

② [공공요금] 4분기 공공요금 동결 원칙하에 관리

- LNG 할당관세 인하 등 고려하여 11~12월 가스요금 동결
- 나머지 공공요금도 연말까지 동결 원칙으로 관리

③ [농축수산물] 주요 품목 중심으로 할인행사 추진 등 안정적 관리

- ① (쌀) 생산량(383만톤 예상, 전년대비 9.1% ↑)에 따라 적정가격이 형성 되도록 관리하고, 할인행사(10월말 종료) 11월 이후까지 연장 추진
 - 11.15일 통계청에서 '21년산 쌀 생산량 최종 발표 이후 수급 여건 및 쌀값 등을 감안하여 시장격리 여부·규모 결정
- ② (계란) 그간 수급안정 노력에 따라 10.19일 5천원대 진입
 - ※ 생산-유통-판매 쏠단계에 걸친 집중 대응으로 7천원대가격이 7월 중순부터 지속 하락 (계란 가격(30개, 원): (2.15) 7,821<고점> (7.15) 7,546 (9.1) 6,741 (10.25) 5,965)
 - 계란 생산량 회복에 따른 생산-유통-판매과정 정상화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고, 연내 가격결정구조 개선* 추진
 - * '12월부터 계란공판장 2개소를 가동하여 경매 등을 통해 시장가격 형성·공표 (경매·정산시스템 구축(~10월) → 공판장 허가 및 시범거래(11월) → 본 거래(12월))
- ③ (소·돼지고기) 「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」 행사(10.28~11.11)와 연계하여 할인행사(등심·불고기 등, 15~25% 내외) 추진
 - 돼지고기도 한돈몰 등을 활용하여 11월중 할인행사 추진
- ④ (김장채소) 김장철(11월~12월중순) 주요 김장채소류(배추, 무, 고추, 마늘)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비용 부담 경감 및 김장물가 안정
 - 수요 예측(10월 중순 김장의향 조사)을 바탕으로 공급부족 예상시 비축물량 등을 통해 공급 확대하고, 김장철 할인행사 확대
 - 김장철 할인행사시 농축산물할인쿠폰 한도 상향(1인당 1→2만원)
- ⑤ (수산물) 수산물 상생할인 행사 지속개최*하고 대중성어종 6종** 할인율(20→30%) 및 1인당 할인한도(1→2만원) 상향 추진
 - * 코리아수산페스타(11.1~15) → 연말이벤트전(11.15~12.8)
 - ** 고등어, 갈치, 오징어, 명태, 참조기, 마른멸치
 - 전통시장(전국 34개)과 연계하여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%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 진행(11~12월 시장별로 2주간 추진)

④ [가공식품] 인상요인 완화를 위한 할당관세 적용 및 업계소통 강화

- 가격 급등 원재료에 대한 '22년 할당관세* 적용 추진
 - * (12월초) '22년 계획(안) 마련 → (12월중순) 국무회의 확정·발표 →('22.1~) 시행
- 업계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현장 애로 청취 및 정부정책방향 공유하고, 인상시기 분산 및 편승인상 자제 등 협조 요청

⑤ [원자재]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온라인직판 확대 및 할인판매 지속

- ① (철근) 시장동향 지속 모니터링 및 유통점검 실시, 수급불안에 취약한 중소기업 대상 온라인 직판 확대*
 - * A社(유통)·B社(생산) 철근(중기 수요가 많은 SD400) 추가생산분 온라인직판 시범추진(10월, 1만톤/월), C社 온라인직판 추진('21.12월~'22.1월 中)
- ② (비철금속) 가격동향을 수시 점검하고, 수급상황에 따라 조달청 비축물량 방출량을 확대하고 할인판매*도 지속(3월~)
 - * 11월 기준 주식 1% 할인판매 예정(방출한도 총 100톤)

⑥ [시장질서]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

- 식료품 원부자재 국제가격 및 국제유가 추이와 가공식품·석유류 국내 판매가격 인상 폭·시기 등을 집중 모니터링
 - 관계부처와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 정황 포착시 공정위에 제보하도록 협조
-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·민원 등이 접수되는 경우 현장조사 등 즉시 대응

⑦ [기타] 소비자부담 완화 및 수급안정화를 위한 신속통관 실시

- '21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(11.1~15일), 소비쿠폰 전면* 재개(단계적 일상회복 개시시점부터) 등을 통해 소비자부담 완화 노력 지속
 - * 외식, 공연, 숙박, 체육, 영화, 관광, 전시, 프로스포츠(농수산은 기 시행 중)
- 수급 안정화가 필요한 필요품목 적기 공급 지원을 위해 전국 세관에 긴급통관지원팀 운영, 통관 검사 최소화 등 추진

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중심으로 유류세·관세 인하 후속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하여 적극 추진

IV. 추진계획 (Action Plan)

과제 내용	필요 조치 사항	추진시기	부처
① 에너지			
유류세 인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유류세인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및 모니터링 체계 가동 	'21.11월 '21.11~'22.4월	기재부 산업부 등
LNG 할당관세 인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관세법 시행령 개정 	'21.11월	기재부
② 공공요금			
4분기 공공요금 동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원칙으로 관리 	'21.11~12월	기재부 산업부 등
③ 농축수산물			
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1월에도 할인행사 실시 	'21.11월~	농식품부
계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계란 공판장(도매시장) 개설·운영 	'21.12월	농식품부
소·돼지고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·돼지고기 할인행사 추진 	'21.11월	농식품부
김장채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급부족 예상시 비축물량 공급확대 김장철 할인행사 확대 및 농축산물 할인쿠폰 한도 상향 	'21.11~12월	농식품부
수산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산물 상생할인 행사 지속 개최 	'21.11~12월	해수부
④ 가공식품			
22년 할당관세 적용 추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격 급등 원재료에 대한 '22년도 할당관세 적용 추진 	'22.1월~	기재부
업계와의 소통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장애로 청취 및 정부정책방향 공유하고, 인상시기 분산 및 편승인상 자제 등 협조요청 	계속	농식품부
⑤ 원자재			
철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유통점검 실시 및 중소기업대상 온라인 직판 확대 	계속	산업부 공정위 등
비철금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급상황에 따른 비축물량 방출량 확대 및 할인판매 지속 	계속	조달청
⑥ 시장질서			
가격담합 모니터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식료품·석유류 국제·국내가격 집중 모니터링 	계속	농식품부 산업부 등
⑦ 기타			
소비자 부담 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코리아세일페스타, 소비쿠폰 9종 재개 등 	'21.11월	관계부처
신속통관실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긴급 통관지원팀 운영 등 	계속	관세청

1. 한시적 인하 방안

① **【유류세】** 휘발유·경유·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

- **【세율】** 유류세 20% 인하(휘발유 164원, 경유 116원, LPG 40원 인하)

◇ **가격인하 효과**(원/ℓ, 서울인하가 100% 가격에 반영될 경우)

- 휘발유 : ('21.10월 3주 전국평균) 1,732 → 1,568(9.5%↓)
- 경유 : ('21.10월 3주 전국평균) 1,530 → 1,414(7.6%↓)
- LPG부탄 : ('21.10월 3주 전국평균) 981 → 941(4.1%↓)

※ 1일 40km 운행(연비 10km/l) 시 휘발유 기준 월 20,000원 가량 절감 가능

- **【세수효과】** 약 △2.5조 원(국세 △2.1조 원)
- **【적용기간】** 동절기 난방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'22.4.30.(약 6개월)까지 한시 적용

※ 다만, 종료 전이라도 국제유가 등 안정 시 조기종료 검토

- **【기대효과】** 전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화에 기여
 - ① 자동차 보유·운행하는 모든 국민에게 혜택 귀속
 - ② 특히, 가계지출 대비 유류비 비중이 높은 중산·저소득층의 유류비 인하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
 - ③ 월 기준 약 0.33%p 물가인하 효과(단, 유류세 인하분이 석유류 가격에 전부 반영될 경우 가정)

2 [할당관세] LNG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

- **【세율】** 기본 3%(12월까지 할당 2%) → **할당 0%**(△18원/kg)
- **【세수효과】** 약 △2,400억원(~'21.12, △12원/kg / '22.1~4, △18원/kg)
- **【적용기간】** '22.4.30.(약 6개월 적용)
- **【기대효과】** 가스 요금 인상압력 완화*
 - * LNG 수입가격 급등에 따른 국내 도시가스 요금인상 압력 억제 가능
 - ① 민수용은 가구당 월 도시가스 요금 동결여력 확보
 - ② 산업용·발전용 LNG 가격 인하를 통한 원가절감

2. 향후 계획

- **【추진일정】** 유류수급 안정화를 위해 대책발표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시행 추진
 -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 시행령 개정 일정을 감안하여 **11.9일 국무회의 상정, 11.12일 시행(잠정)** 추진
 - * 입법예고(10.29.~11.1) → 관계부처 협의(10.26.~11.1.) → 차관·국무회의(11.4./11.9.)
- **【후속조치】** 시행 직후 즉각적인 인하효과*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 합동 모니터링 체계** 가동
 - * 「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방안」 내주 중 마련
 - ** 기재부, 산업부, 공정위, 국토부 등